

# 경찰공무원의 가치관에 대한 한미간의 비교연구

## Comparative Study on Value Systems of Korean and American Police Officers

한상암\*, 정덕영\*\*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경동대학교 경찰경호학부\*\*

Sang-Am Han(hansa@wonkwang.ac.kr)\*, Duke-Young Jeong(jduke@hanmail.net)\*\*

### 요약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한 조직에 대하여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한 조직의 문화 역시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Ott(1989)는 조직행태에 있어서 개인적인 가치관의 중심적인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Schein(1985) 역시 이점을 강조하였다. 경찰조직도 역시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로, 상당한 정도까지는 경찰조직의 조직문화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개개 경찰관들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경찰조직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고유한 개인적 신념, 정책선호성향,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입직한다. 이와 같은 개인적 가치들은 개개 경찰관의 입장에서 시행하는 재량적인 선택의 측면과 관련된 행태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Rokeach에 의하여 미국의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들이 가진 가치관의 성향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개발된 가치관 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경찰관들과 미국의 경찰관들 사이의 가치관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 중심어 : | 경찰행태 | 가치관 | 조직문화 | 경찰행정 | 가치체계 |

### Abstract

Through contemporary researches on policing, individual employees in law enforcement agencies has gained more and more attention from researchers and police organization managers. Unfortunately an important but largely ignored area of current research on individual police officers concerns the value orientations obtaining among Korean police officers. And during last five decades or so, no research has been done on this issue.

Studying individual value orientations is important because a substantial body of research indicates that particular patterns of value orientation predict world views and hence can in turn predict behavior at the workplace and behavioral predispositions on salient social issues.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e authors intended to answer these issues.

- (1)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value orientations among Korean police officers.
- (2) Is there any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police officers on the value orientations among them.

■ keyword : | Police Behavior | Value Orientation | Organizational Culture | Police Administration | Value System |

\* 본 논문은 2006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 I. 서론

최근의 경찰학 연구분야에 있어서, 연구자들과 실무자들 모두에게 있어서 경찰관 개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로는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Hageman, 1978/1982; Wolpin 등, 1978; Beehr 등, 1995), 경찰관의 직무만족관련 연구(Griffin 등, 1978; Buzawa, 1981/1984; Dantzker, 1992/1993), 경찰관의 냉소주의(Regoli 등, 1979), 그리고 동기부여에 관한 연구(Hochstedler and Dunning, 1983; Wycoff and Skogan, 1994) 등이 있다. 행태과학적 시각에 근거하여 실시된 이와 같은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로 인하여 경찰조직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켜 주었으며 특히 경찰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경찰조직구성원들의 개별적인 Wellbeing과 인간다운 삶의 질적인 측면으로 확대시켜 주었다.

개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특정한 가치관의 유형이 세상에 대한 한 개인의 견해를 예측해 낼 수 있으며 따라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한 개인의 태도와 직장에서의 행태를 예측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Rokeach, 1973). 즉, 한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가치체계와 보편적인 문화사이의 관계는 상호작용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Ott, 1989; Trojanowicz and Bucqueroux, 1990). 또한 개인적인 가치는 경찰조직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행태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Lipsky, 1980). 개인들은 경찰조직에 자신의 고유한 개인적인 신념, 정책적 선호, 그리고 내재된 태도를 가지고 입적한다[1][2]. 따라서 경찰조직의 문화는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가치관의 범위와 강도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Zhao et. al. 1995; Wasserman and Moore, 1988). 이 논문의 목적은 Rokeach에 의하여 미국의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들이 가진 가치관의 성향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개발된 가치관 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경찰관들의 가치관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 II. Rokeach의 가치관 이론

### 1. 가치체계의 개념

인간의 가치체계의 유형을 설명하고 그러한 가치체계가 개인의 행태를 예측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이론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Milton Rokeach의 가치관이론이다. 요약하면, Rokeach는 독특한 개인적 혹은 집단적 규범과 행태가 종종 보편적인 가치관 중 특정한 유형에 결합되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Rokeach, 1973).

Rokeach는 가치를 “특정한 행동 유형 혹은 존재의 궁극적 상태가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지속적인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정립에 기초하여, 가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특성을 반영한다. (1) 선호하는 것에 대한 인식 (2) 감정과 결합하여 영향을 미친다. (3) 실제로 동작되는 경우 특정행동으로 이르게 하는 행태적인 구성요소가 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태도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내재되어 있는 가치관의 표현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Rokeach는 인간에게 있어 최우선적 관심을 유발하는 가치의 전체 수는 비교적 제한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가치들은 상대적인 중요성의 연속선상에 배열되는 선호하는 행동양식 혹은 궁극적인 상태에 관한 믿음의 상존하는 체계(조직화)인 가치체계에 배열될 수 있다[3].

### 2. 가치체계의 중요성

상대적 중요성에 근거한 가치체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먼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특정한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은 커다란 범위에서 유사한 가치체계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정치철학을 선호하도록 하며 독특한 투표성향을 형성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한 가치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과정에 있어 독자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한 개인의 행동을 지배한다[4].

### 3. 가치체계의 특성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가치체계는 시간에 상관없이 불변한다. 이는 한 개인에 의하여 선호되는 가치는 일

정한 시간이 지나간 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가치 선호에 있어서의 변화 즉 가치 전환(Value Shift)은 매우 느린 과정이며, 한 개인의 가치체계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구조적인 욕구까지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세계의 평화라는 가치는 20년 전의 냉전의 시대에 비하여 전쟁의 위협이 현저하게 줄어든 현재에는 덜 중요한 항목이 될 것이며, 세대의 변화에 따른 가치체계의 변화가 이루어 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치변화는 특별한 계기들 혹은 행위들에 의하여 유발되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Rokeach에 의하면 “변화의 과정은 직무상에서의 유도기제(inducing mechanism)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된다. 더구나 인간의 가치의 변화는 인간의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다”[5]. 다른 말로하면, 뭔가 핵심적이고 특별한 것이 개인의 가치 변화가 유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촉매로서 제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의 사기업들에서 총질관리(TQM)의 소개와 채택은 이러한 유형의 촉발되어진 변화를 의미한다(Anderson et. al., 1994; Spencer, 1994).

#### 4. 가치체계의 구성요소

Rokeach는 인간의 가치체계가 궁극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의 두 가지 유형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궁극적 가치는 인간의 근본적인 목표들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수단적 가치들은 궁극적인 상태를 이루기 위하여 활용되어진 수단의 측면에서 개인적인 선호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Rokeach는 그의 경험적인(실증적인) 연구에서 궁극적 가치(external values)를 나타내 주는 18가지의 가치 항목과 수단적 가치(instrumental values)를 측정할 수 있는 18가지 항목을 발견해 냈다. 이러한 설문조사 도구는 수많은 실증적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 III. 선행연구의 검토

연구[6]와 같이 1970년대부터 Rokeach척도가 경찰학

의 분야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1968년도 중서부의 중간규모 경찰관서(15만명 정도의 인구규모)에서 153명의 백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Rokeach와 그의 동료들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일반 시민들과 비교하여 경찰관들이 상대적으로 독특한 가치관의 유형을 보여주었다. 조사대상 경찰관들은 일반 시민들에 비하여 평등성을 현저하게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으며 Rokeach와 그의 동료들은 “평등성 항목이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정치적 보수성의 예측 지표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었음”을 주장하였다.

경찰관들의 보수적인 정치성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연구[7]은 시카고 경찰관들이 사회적인 변화에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음을 발견해 내었으며, Skolnick은 캘리포니아 경찰을 대상으로 한 그의 연구에서 “Goldwater 유형의 보수주의적 성향이 경찰의 정치적 정서적 성향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연구[8]은 Denver 경찰관들이 지역사회 전체에 비하여 좀더 보수적이었으며 공화당 지향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그들은 경찰관들의 연령은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관계가 없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경찰의 보수적인 성향을 설명해주는 것은 모집후의 사회화 과정보다는 초기 선발과정이란 점을 발견해 내었다.

Rokeach와 그의 동료들(1973)은 재직연수라고 하는 경찰조직에서의 사회화 과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인을 활용하여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는 경찰서 내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경찰관들 사이에 가치유형에 있어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9].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보아 경찰관들은 그들의 세계관에 있어 매우 친밀한 집단으로 파악 될 수 있음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Sherrid(1979)는 뉴욕 도심지역에서 근무하는 384명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Rokeach의 궁극적 가치관을 조사하였다. 그는 Rokeach에 의하여 발견되었던 궁극적 가치지표들의 배열 순위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였으며, 특히 경찰관들은 평등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배열하였다. 그러나 Sherrid는 경찰관들이 민주사회에서의 평등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획

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6개월 동안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에 다른 지표들은 대부분 변화되지 않았던 반면에 평등성에 대한 집단적 우선순위가 16번째에서 11번째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10].

South Carolina에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에 근거하여, Griffeth와 Cafferty(1977) 역시 Rokeach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경찰관들이 개인적인 문제들에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으며(예를 들면, 자아존중과 가정의 안전), 사회적 가치들(예를 들면, 사회적 인식 Recognition)에 낮은 순위를 부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11]. (Teahan 1975; Lefkowitz, 1975; Burbeck and Furnham, 198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들은 5년 이상, 일년 이상 5년 미만, 1년 미만이라는 경험에 근거하여 분류된 세 집단의 경찰관들은 가치에 있어서 아무런 현저한 차이도 보이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들은 입직전에는 아무런 사회화 현상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경찰관과 시민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거나(예를 들면, 특정한 사람들은 경찰활동에 입직하기 전에 걸러지는 경향이 있다) 혹은 사회화 현상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거의 순간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최근에 Zhao et. al.(1998)은 Washington주의 경찰관서들에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번의 연구들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가지고 Rokeach et. al.(1971)의 연구결과들과 비교 연구하였다. 그들은 경력, 교육, 그리고 성별이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에 약간의 현저한 가치관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하여 한가지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관들 사이의 가치성향은 시간의 경과와 경찰관들 사이의 소집단의 차이에 따라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보였다[12].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되었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경찰조직에서의 보편적인 가치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도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많은 연구결과들에서 언급된 지역적 그리고 관서 규모별 차이와도 상관 없었다. 이는 궁극적 가치관의 순위를 검토하였던

Rokeach에 의하여 발견되었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최근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행과정에서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Zhao et. al.(1998)은 1993년 중간규모의 경찰서 중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찰서 내의 경찰관들의 가치체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었다. 그들은 20년 전에 발표되었던 Rokeach et. al.(1977)에 의하여 연구되었던 널리 인용되어지는 연구와 비교하여 미국의 경찰관들 사이에 일반적인 가치체계의 측면에서 현저한 변화의 증거는 없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8개 경찰서에 대한 평가에서 Sadd와 Grinc(1994)는 지역사회 경찰을 지향하는 조직상의 변화과정에 경찰관들은 특히 저항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경찰관들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의 전환에 저항하며, 이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경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기 때문이다[13].” 더구나 Sadd와 Grinc(1994)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경찰관들은 종종 자신들의 동료 경찰관들 사이에서 경찰활동의 진정성마저도 의심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IV. 연구방법

### 1. 표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경감 이하의 경찰관집단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찰관들의 가치관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감 이하의 전체 경찰관집단을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경찰관집단 전체를 분석의 단위로 선정할 경우 집단 전체가 가진 가치체계 전체적 특성에 대한 관찰과 측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경찰관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단위로서 경감 이하의 경찰관 개개인을 관찰함으로써 경찰관집단 전체의 가치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6

월부터 7월 사이에 무작위 표집으로 수집된 241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논문과 문헌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241개의 설문자료는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SPSSwin ver. 1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의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기술적인 분석(Descriptive Analysis)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빈도분포도(frequency table)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전체 표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3.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표 2][표 3][표 4][표 5][표 6]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 경찰관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23명(92.5%)이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오직 18명에 7.5%만을 구성하고 있어 우리 경찰이 아직도 남성의 직업임을 또한 여실히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되었던 조사대상자들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22세에서 29세까지의 20대 연령층이 37명(17.5%), 30-39세의 30대가 101명(47.9%), 40세에서 49세까지의 40대 연령층이 61명(28.9%), 50세에서 59세까지가 12명(5.7%)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계급별 구성을 살펴보면 순경이 35명으로 14.5%, 경장이 78명으로 32.4%, 경사가 84명으로 34.9%, 경위는 43명으로 17.8%를, 경감은 1명으로 0.4%를 구성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근무부서별 구성을 살펴보면 생활안전 및 지구대가 각각 47명과 43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비가 41명, 수사형사가 25명, 정보와 교통이 각각 19명, 경무 17명의 순이다.

표 1. 성별, 연령 및 계급별 구성

성별	빈도(%)	연령	빈도(%)	계급	빈도(%)
남자	223 (92.5)	20대	37 (17.5)	순경	35(14.5)
여자	18 (7.5)	30대	101 (47.9)	경장	78(32.4)
		40대	61 (28.9)	경사	84(34.9)
		50대	12 (5.7)	경위	43(17.8)
				경감	1(0.4)
합계	241 (100.0)		211 (100.0)		241(100.0)

표 2. 근무부서

근무 부서	빈도 (%)
수사형사	25 (10.5)
생활안전	47 (19.7)
교통	19 (8.0)
경비	41 (17.2)
경무	17 (7.1)
보안	11 (4.6)
정보	19 (8.0)
지구대 및 치안센터	43 (18.1)
기 타	16 (6.7)
합 계	238 (100.0)

조사대상자들의 학력별 구성을 살펴보면 고졸이 81명으로 34.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문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는 49명(20.7%)이었다. 대학교 재학 중 혹은 졸업자가 103명(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졸업자도 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경찰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먼저 재직기간은 22.7%인 48명이 1개월에서 5년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을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동안 재직해 온 대상자는 59명(28.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38명(18.0%)였다. 또한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40명(19.0%)이었으며, 20년 이상 경찰에 봉직해 온 경찰관도 26명(1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최종학력 및 재직기간

최종학력	빈도 (%)	재직기간	빈도 (%)
고졸	81 (34.2)	5년 미만	48 (22.7)
전문대 재학중	3 (1.3)	5년 이상-10년 미만	59 (28.0)
전문대 졸	46 (19.4)	10년 이상-15년 미만	38 (18.0)
대학교 재학중	15 (6.3)	15년 이상-20년 미만	40 (19.0)
대학교 졸	88 (37.1)	20년 이상-25년 미만	17 (8.1)
대학원 졸	4 (1.7)	25년 이상-30년 미만	9 (4.3)
합계	237 (100.0)		211 (100.0)

### V. 분석결과와 논의

#### 1. 궁극적 가치항목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가치체계 중 궁극적 가치항목(Terminal Values)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 경찰공무원 중 66명(28.1%)이 가정의 안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항목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59명, 25.0%)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Griffeth와 Cafferty(197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경찰관들 역시 개인적인 문제들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존중(0명, 0%), 자존심(1명, 0.4%), 평등,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우정은 각각 2명(0.9%)만이 1순위로 선택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행복과 국가의 안전을 1순위로 선택한 경찰공무원도 각각 30명(12.8%)과 23명(9.8%)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즐거움(21명, 9.0%), 성취감(11명, 4.7%)의 순으로 조사되어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경찰관이 개인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79년에 뉴욕경찰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던 Sherrid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평등성에 대한 경찰관들의 응답 역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순위를 부여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즉, Sherrid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등성은 18가지 궁극적 가치배열에서 16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배열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찰관들 역시 14번째로 응답하였다. 또한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경찰관들 중 사회적 존경을 가장 중요한 가치항목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살펴 볼 때,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조직문화 역시 외국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며, 이는 경찰관 개인의 가치관과 행태의 집합이 경찰조직문화라는 점 때문이다.

표 4. 궁극적 가치항목

순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도전적이며 생활	성취감	평화로운 세상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59 (25.0)	4 (1.7)	11 (4.7)	5 (2.1)
2	35 (14.8)	8 (3.4)	13 (5.5)	18 (7.7)
3	16 (6.8)	9 (3.8)	27 (11.4)	17 (7.2)
4	18 (7.6)	5 (2.1)	17 (7.2)	23 (9.8)
5	23 (9.7)	15 (6.4)	9 (3.8)	13 (5.5)
6	15 (6.4)	7 (3.0)	11 (4.7)	23 (9.8)
7	8 (3.4)	12 (5.1)	14 (5.9)	21 (8.9)
8	5 (2.1)	11 (4.7)	12 (5.1)	19 (8.1)
9	10 (4.2)	16 (6.8)	17 (7.2)	11 (4.7)
10	8 (3.4)	12 (5.1)	13 (5.5)	18 (7.7)
11	3 (1.3)	22 (9.4)	12 (5.1)	14 (6.0)
12	4 (1.7)	16 (6.8)	11 (4.7)	16 (6.8)
13	5 (2.1)	13 (5.6)	12 (5.1)	11 (4.7)
14	3 (1.3)	13 (5.6)	13 (5.5)	9 (3.8)
15	4 (1.7)	16 (6.8)	16 (6.8)	10 (4.3)
16	7 (3.0)	18 (7.7)	11 (4.7)	4 (1.7)
17	7 (3.0)	18 (7.7)	13 (5.5)	2 (0.9)
18	6 (2.5)	19 (8.1)	4 (1.7)	1 (0.4)
합계	236 (100.0)	234 (100.0)	236 (100.0)	235 (100.0)

순위	아름다운 세상	평등	가정의 안전	자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8 (3.4)	2 (0.9)	66 (28.1)	7 (3.0)
2	12 (5.2)	2 (0.9)	56 (23.8)	20 (8.5)
3	17 (7.3)	15 (6.4)	16 (6.8)	6 (2.6)
4	16 (6.9)	11 (4.7)	16 (6.8)	20 (8.5)
5	28 (12.0)	5 (2.1)	11 (4.7)	22 (9.4)
6	17 (7.3)	15 (6.4)	5 (2.1)	16 (6.8)
7	19 (8.2)	10 (4.3)	14 (6.0)	8 (3.4)
8	22 (9.4)	11 (4.7)	6 (2.6)	19 (8.1)
9	17 (7.3)	16 (6.8)	4 (1.7)	22 (9.4)
10	7 (3.0)	20 (8.5)	5 (2.1)	17 (7.2)
11	12 (5.2)	13 (5.5)	9 (3.8)	11 (4.7)
12	10 (4.3)	19 (8.1)	4 (1.7)	17 (7.2)
13	9 (3.9)	19 (8.1)	6 (2.6)	11 (4.7)
14	17 (7.3)	21 (8.9)	5 (2.1)	15 (6.4)
15	8 (3.4)	18 (7.7)	4 (1.7)	5 (2.1)
16	10 (4.3)	12 (5.1)	3 (1.3)	8 (3.4)
17	2 (0.9)	18 (7.7)	2 (0.9)	7 (3.0)
18	2 (0.9)	8 (3.4)	3 (1.3)	4 (1.7)
합계	233 (100.0)	235 (100.0)	235 (100.0)	235 (100.0)

순위	행복	마을의 안정	진실한 사랑	국가의 안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30 (12.8)	9 (3.8)	2 (0.9)	23 (9.8)
2	22 (9.4)	19 (8.1)	6 (2.6)	8 (3.4)
3	34 (14.5)	30 (12.7)	9 (3.8)	16 (6.8)
4	17 (7.2)	28 (11.9)	10 (4.3)	14 (6.0)
5	24 (10.2)	11 (4.7)	14 (6.0)	19 (8.1)
6	23 (9.8)	20 (8.5)	11 (4.7)	12 (5.1)
7	12 (5.1)	19 (8.1)	17 (7.2)	8 (3.4)
8	11 (4.7)	20 (8.5)	18 (7.7)	12 (5.1)
9	13 (5.5)	12 (5.1)	15 (6.4)	9 (3.8)
10	13 (5.5)	17 (7.2)	16 (6.8)	13 (5.5)
11	7 (3.0)	13 (5.5)	18 (7.7)	14 (6.0)
12	4 (1.7)	9 (3.8)	22 (9.4)	6 (2.6)
13	9 (3.8)	5 (2.1)	15 (6.4)	14 (6.0)
14	6 (2.6)	7 (3.0)	11 (4.7)	16 (6.8)
15	5 (2.1)	9 (3.8)	14 (6.0)	14 (6.0)
16	2 (0.9)	2 (0.8)	17 (7.2)	14 (6.0)
17	2 (0.9)	3 (1.3)	9 (3.8)	16 (6.8)
18	1 (0.4)	3 (1.3)	11 (4.7)	7 (3.0)
합계	235 (100.0)	236 (100.0)	235 (100.0)	235 (100.0)

순위	자존심	진실한 우정
	빈도 (%)	빈도 (%)
1	1 (0.4)	2 (0.9)
2	1 (0.4)	6 (2.6)
3	4 (1.7)	5 (2.1)
4	1 (0.4)	13 (5.6)
5	7 (3.0)	7 (3.0)
6	5 (2.1)	16 (6.8)
7	12 (5.1)	13 (5.6)
8	5 (2.1)	14 (6.0)
9	9 (3.8)	12 (5.1)
10	13 (5.5)	21 (9.0)
11	10 (4.3)	15 (6.4)
12	21 (8.9)	20 (8.5)
13	12 (5.1)	22 (9.4)
14	15 (6.4)	18 (7.7)
15	32 (13.6)	18 (7.7)
16	20 (8.5)	28 (12.0)
17	24 (10.2)	4 (1.7)
18	43 (18.3)	0 (0)
합계	235 (100.0)	234 (100.0)

순위	사회적 존경	지혜로운	구원	즐거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0 (0)	4 (1.7)	3 (1.3)	21 (9.0)
2	4 (1.7)	4 (1.7)	1 (0.4)	11 (4.7)
3	4 (1.7)	1 (0.4)	5 (2.1)	19 (8.2)
4	6 (2.6)	7 (3.0)	2 (0.9)	14 (6.0)
5	4 (1.7)	3 (1.3)	3 (1.3)	15 (6.4)
6	14 (6.0)	16 (6.8)	6 (2.6)	16 (6.9)
7	14 (6.0)	13 (5.6)	4 (1.7)	15 (6.4)
8	18 (7.7)	19 (8.1)	3 (1.3)	15 (6.4)
9	11 (4.7)	17 (7.3)	6 (2.6)	16 (6.9)
10	12 (5.1)	11 (4.7)	4 (1.7)	11 (4.7)
11	14 (6.0)	17 (7.3)	4 (1.7)	13 (5.6)
12	19 (8.1)	22 (9.4)	6 (2.6)	12 (5.2)
13	25 (10.6)	21 (9.0)	22 (9.4)	11 (4.7)
14	12 (5.1)	17 (7.3)	15 (6.4)	11 (4.7)
15	21 (8.9)	12 (5.1)	31 (13.2)	14 (6.0)
16	31 (13.2)	13 (5.6)	43 (18.4)	11 (4.7)
17	14 (6.0)	17 (7.3)	76 (32.5)	4 (1.7)
18	12 (5.1)	20 (8.5)	12 (5.0)	4 (1.7)
합계	235 (100.0)	234 (100.0)	236 (100.0)	233 (100.0)

## 2. 수단적 가치항목

궁극적인 상태를 이루기 위하여 활용되는 수단의 측면에서 경찰공무원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나타내주는 수단적 가치항목(Instrumental Values)에 대한 조사대상 경찰공무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 경찰공무원들은 책임감(37명, 15.8%), 정직(35명, 15.0%),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33명, 14.1%)의 순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항목으로 응답하였다. 조사대상 경찰공무원들 중 21명(9.0%)는 넓은 마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항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인적 능력을 가장 중요한 가치항목이라고 대답한 경찰관도 17명(7.3%)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야심(12명, 5.2%), 관용(9명, 3.9%)이 가장 중요한 수단적 가치라고 응답한 경찰관들이 그 뒤를 이었으며, 용기와 예절, 그리고 창의력과 자제력을 가장 중요한 수단적 가치로 꼽은 경찰관들도 각각 8명(3.4%)과 7명(3.0%)이었다. 다음으로 논리적 사고(6명, 2.6%), 즐거운 기분(5명, 2.1%)의 순이었고 청결과 지적인 능력은 각각 4명(1.7%)이었다. 조사대상 경찰공무원들 중 오로지 2명(0.9%)만이

이타적 생활을 가장 중요한 수단적 가치로 들었으며, 독립심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장 중요한 수단적 가치로 꼽은 경찰공무원은 각각 1명(0.4%)으로 이들 가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찰공무원이 거의 없었다.

표 5. 수단적 가치항목

순위	이성	같은 비윤	개인적 능력	즐거움 기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12 (5.2)	21 (9.0)	17 (7.3)	5 (2.1)
2	1 (0.4)	25 (10.7)	18 (7.7)	18 (7.7)
3	4 (1.7)	18 (7.7)	14 (6.0)	17 (7.2)
4	9 (3.9)	12 (5.2)	15 (6.4)	23 (9.8)
5	10 (4.3)	13 (5.6)	10 (4.3)	13 (5.5)
6	13 (5.6)	28 (12.0)	5 (2.1)	23 (9.8)
7	11 (4.7)	14 (6.0)	15 (6.4)	21 (8.9)
8	5 (2.2)	15 (6.4)	15 (6.4)	19 (8.1)
9	7 (3.0)	13 (5.6)	12 (5.2)	11 (4.7)
10	9 (3.9)	10 (4.3)	18 (7.7)	18 (7.7)
11	12 (5.2)	15 (6.4)	11 (4.7)	14 (6.0)
12	8 (3.4)	7 (3.0)	15 (6.4)	16 (6.8)
13	6 (2.6)	12 (5.2)	12 (5.2)	11 (4.7)
14	15 (6.5)	6 (2.6)	18 (7.7)	9 (3.8)
15	13 (5.6)	5 (2.1)	14 (6.0)	10 (4.3)
16	14 (6.0)	9 (3.9)	13 (5.6)	4 (1.7)
17	32 (13.8)	9 (3.9)	9 (3.9)	2 (0.9)
18	50 (21.6)	1 (0.4)	2 (0.9)	1 (0.4)
합계	232 (100.0)	233 (100.0)	233 (100.0)	235 (100.0)

순위	정신	행위	관용	이타적 생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4 (1.7)	8 (3.4)	9 (3.9)	2 (0.9)
2	13 (5.6)	14 (6.0)	11 (4.7)	3 (1.3)
3	9 (3.9)	15 (6.4)	17 (7.3)	3 (1.3)
4	9 (3.9)	15 (6.4)	15 (6.4)	10 (4.3)
5	14 (6.0)	16 (6.8)	13 (5.6)	3 (1.3)
6	4 (1.7)	16 (6.8)	15 (6.4)	7 (3.0)
7	8 (3.4)	9 (3.8)	23 (9.9)	7 (3.0)
8	12 (5.2)	13 (5.6)	14 (6.0)	5 (2.2)
9	15 (6.4)	25 (10.7)	18 (7.7)	2 (0.9)
10	11 (4.7)	19 (8.1)	15 (6.4)	12 (5.2)
11	11 (4.7)	16 (6.8)	11 (4.7)	9 (3.9)
12	10 (4.3)	15 (6.4)	13 (5.6)	11 (4.8)
13	16 (6.9)	15 (6.4)	18 (7.7)	12 (5.2)
14	25 (10.7)	6 (2.6)	16 (6.9)	14 (6.1)
15	24 (10.3)	12 (5.1)	8 (3.4)	13 (5.6)
16	22 (9.4)	9 (3.8)	8 (3.4)	16 (6.9)
17	20 (8.6)	7 (3.0)	6 (2.6)	37 (16.0)
18	6 (2.6)	4 (1.7)	3 (1.3)	65 (28.1)
합계	233 (100.0)	234 (100.0)	233 (100.0)	231 (100.0)

순위	정직	장의례	독립심	지적인 능력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35 (15.0)	7 (3.0)	1 (0.4)	4 (1.7)
2	30 (12.9)	12 (5.2)	4 (1.7)	8 (3.4)
3	20 (8.6)	8 (3.4)	14 (6.0)	15 (6.4)
4	23 (9.9)	8 (3.4)	9 (3.9)	19 (8.2)
5	18 (7.7)	11 (4.7)	13 (5.6)	14 (6.0)
6	17 (7.3)	12 (5.2)	12 (5.2)	13 (5.6)
7	15 (6.4)	20 (8.6)	14 (6.0)	8 (3.4)
8	9 (3.9)	18 (7.7)	21 (9.1)	22 (9.4)
9	9 (3.9)	13 (5.6)	10 (4.3)	21 (9.0)
10	6 (2.6)	22 (9.4)	18 (7.8)	16 (6.9)
11	13 (5.6)	13 (5.6)	15 (6.5)	22 (9.4)
12	14 (6.0)	15 (6.4)	16 (6.9)	22 (9.4)
13	8 (3.4)	13 (5.6)	15 (6.5)	19 (8.2)
14	4 (1.7)	14 (6.0)	21 (9.1)	5 (2.1)
15	5 (2.1)	18 (7.7)	23 (9.9)	6 (2.6)
16	3 (1.3)	14 (6.0)	13 (5.6)	11 (4.7)
17	2 (0.9)	8 (3.4)	7 (3.0)	5 (2.1)
18	2 (0.9)	7 (3.0)	6 (2.6)	3 (1.3)
합계	233 (100.0)	233 (100.0)	232 (100.0)	233 (100.0)

순위	논리적인 사고	시들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예절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6 (2.6)	33 (14.1)	1 (0.4)	8 (3.4)
2	9 (3.9)	16 (6.8)	5 (2.1)	19 (8.2)
3	17 (7.3)	14 (6.0)	3 (1.3)	7 (3.0)
4	12 (5.2)	14 (6.0)	4 (1.7)	16 (6.9)
5	17 (7.3)	13 (5.6)	5 (2.1)	21 (9.0)
6	14 (6.0)	14 (6.0)	6 (2.6)	16 (6.9)
7	11 (4.7)	7 (3.0)	10 (4.3)	18 (7.7)
8	11 (4.7)	12 (5.1)	9 (3.9)	10 (4.3)
9	14 (6.0)	11 (4.7)	5 (2.1)	14 (6.0)
10	15 (6.5)	13 (5.6)	11 (4.7)	9 (3.9)
11	17 (7.3)	11 (4.7)	8 (3.4)	17 (7.3)
12	19 (8.2)	10 (4.3)	18 (7.7)	11 (4.7)
13	15 (6.5)	12 (5.1)	17 (7.3)	19 (8.2)
14	15 (6.5)	14 (6.0)	15 (6.4)	13 (5.6)
15	12 (5.2)	14 (6.0)	27 (11.6)	6 (2.6)
16	11 (4.7)	16 (6.8)	28 (12.0)	17 (7.3)
17	14 (6.0)	6 (2.6)	31 (13.3)	9 (3.9)
18	3 (1.3)	4 (1.7)	30 (12.9)	3 (1.3)
합계	232 (100.0)	234 (100.0)	233 (100.0)	233 (100.0)



순위	책임감	자제력
	빈도 (%)	빈도 (%)
1	37 (15.8)	7 (3.0)
2	25 (10.7)	9 (3.9)
3	24 (10.3)	12 (5.2)
4	16 (6.8)	13 (5.6)
5	15 (6.4)	11 (4.7)
6	14 (6.0)	14 (6.0)
7	13 (5.6)	15 (6.5)
8	16 (6.8)	12 (5.2)
9	14 (6.0)	14 (6.0)
10	6 (2.6)	16 (6.9)
11	7 (3.0)	12 (5.2)
12	6 (2.6)	13 (5.6)
13	4 (1.7)	10 (4.3)
14	8 (3.4)	14 (6.0)
15	4 (1.7)	15 (6.5)
16	5 (2.1)	12 (5.2)
17	18 (7.7)	7 (3.0)
18	2 (0.9)	26 (11.2)
합계	234 (100.0)	232 (100.0)

3. 가치관에 대한 한미간의 비교

경찰공무원의 가치관에 대한 한·미간의 비교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표 6]과 같이 3회에 걸친 연구결과를 포함하였다. [표 6]에 제시된 연구결과 중 첫 번째는 Rokeach 등(1971)에 의하여 실시된 연구결과이며, 경찰관의 가치관에 대하여 궁극적 가치항목척도를 활용한 최초의 연구결과로서 비교의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1991년 Washington 주의 Tacoma 시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Caldero(1993)에 의하여 조사된 연구결과가 소개되었으며, Zhao 등에 의하여 Washington 주의 Spokane시에서 1993년도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1998년도에 발표된 연구결과도 비교대상으로 제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연구결과들을 보면 대체로 경찰공무원의 가치관은 시대와 지역, 그리고 국가를 막론하고 거의 변화가 없이 일관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즉, 1968년도에 Rokeach 등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와 1991년도와 1993년도에 수행된 연구결과 그리고 2006년도에 실시된 본 연구의 조사결과 모두가 궁극적 가치척도의 순위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와 국가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 항목으로서 평화로운 세상은 1968년의 연구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었으나 이후에 시행된 연구에서는 그 중요성이 극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의 연구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산권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 등으로 인하여 세계평화에 대한 강조의 필요성이 감소한 탓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화해의 무드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의 경우 우리나라는 네 번째 순위를 보였으며, 미국의 경우 12번째와 16번째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찰관들이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분단국가로서의 현 상태에 대한 염려가 내재되어 있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국가와 안전과 같이 미국과 한국의 경찰관 사이에 중요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현격하게 나타내 준 가치항목으로 자존심을 들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두 번째에서 4번째 까지 매우 순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찰공무원들은 17번째 중요한 가치항목으로 응답하여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를 보였다.

표 6. 한미간의 궁극적 가치의 평균값과 서열 비교[14]

궁극적 가치항목 (Terminal values)	Rokeach 연구(N=153)		Tacoma, WA (N=119)		Spokane, WA (N=165)		한국(N=236)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편안한 생활 (A comfortable life)	8.0	(8)	7.2	(4)	9.4	(10)	5.54	(2)
도전지향적 생활 (An exciting life)	12.9	(15)	10.1	(12)	10.4	(12)	11.03	(11)
성취감 (A sense of accomplishment)	7.3	(5)	9.2	(9)	9.2	(7)	8.83	(6)
평화로운 세상 (A world of peace)	5.3	(2)	14.1	(17)	10.9	(15)	7.86	(10)
아름다운 세상 (A world of beauty)	16.0	(18)	15.5	(18)	12.5	(18)	8.06	(8)
평등(Equality)	11.7	(14)	12.5	(14)	10.5	(13)	10.8	(14)
가정의 안전 (Family security)	2.9	(1)	3.4	(1)	6.2	(1)	4.67	(1)
자유(Freedom)	5.3	(3)	8.7	(8)	8.1	(4)	8.51	(9)
행복(Happiness)	7.7	(6)	4.1	(2)	7.9	(3)	5.98	(3)
마음의 안정 (Inner harmony)	11.3	(13)	8.1	(7)	8.8	(6)	7.12	(7)
진실한 사랑 (Mature love)	10.2	(10)	7.6	(5)	9.3	(9)	10.29	(15)
국가의안전 (National security)	11.1	(12)	13.9	(16)	11.0	(16)	9.09	(4)
즐거움(Pleasure)	13.7	(16)	10.2	(13)	10.6	(14)	9.91	(5)
구원(Salvation)	10.5	(11)	10.0	(11)	9.7	(11)	15.01	(13)
자존심 (Self-respect)	7.0	(4)	6.2	(3)	7.3	(2)	13.31	(17)
사회적 존경 (Social recognition)	14.4	(17)	13.1	(15)	11.6	(17)	11.70	(18)
진실한 우정 (True friendship)	9.1	(9)	7.9	(6)	8.7	(5)	11.5	(16)
지혜로움(Wisdom)	8.0	(7)	9.4	(10)	9.2	(8)	11.4	(12)
연구년도	1968		1991		1993		2006	

또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의 경우 미국의 경찰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지 않다고 응답한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가치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미국은 세 번에 걸친 연구 모두에서 일관되게 18번째 순위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가치항목으로 응답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8번째로 중간 정도의 중요한 가치항목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와 시대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가치관은 국가와 시대를 초월하여 거의 일관되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가정의 안전은 네 번에 걸친 연구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행복의 경우 약간의 순위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중요한 가치로서 응답하였다. 또한 성취감은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에 있어 상대적 중요성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전지향적인 생활이나 평등성 역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낮은 가치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에 있어 경찰공무원들은 사회적 존경을 가장 중요하지 않은 가치항목으로 일관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 VI. 결론

경찰관들은 다른 직업집단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와 인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와 같은 차이점들이 그들이 법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방법(manner)을 결정하게 됨을 보여주는 수많은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이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 있어 경찰의 역할 역시 과거의 법집행 중심에서 그 지역의 시민들을 관리하고 범죄의 근원적인 원인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15]. 이와 같은 경찰활동상의 변화는 괄목할만한 사회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면, Corder와 Trojanowicz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을 경찰을 “범죄의 투

쟁자”에서 중요한 지역사회 개선의 주창자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았으며[16], Lewis et. al.(1984)는 지역주민의 우대관계의 감소를 역전시켜주며 공공의 안녕을 되찾기 위한 전략임을 주장하였다[17].

이와 같은 경찰활동상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경찰의 조직문화의 변화와 그에 따른 경찰관 개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 경찰활동과 관련된 변화들은 다측면적이며, 지역사회 참여적이며, 전체 경찰기관이 모두 참여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한 개의 주제로 집약되며, 경찰의 조직문화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을 통하여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노력의 시초로서 우리나라 경찰관의 가치관의 특성을 살펴 보았으며, 이를 미국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 참고문헌

- [1] W. Muir, *Police: The Streetcorner Politician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67, 1977.
- [2] M. Breck and R. Simons, "An Examination of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Factors that Influence Police Response to Domestic Disturbance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Vol.15, pp.93-104, 1987.
- [3] M. Rokeach,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The Free Press, pp.5-7, 1973.
- [4] M. Rokeach,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The Free Press, pp.14-20, 1973.
- [5] M. Rokeach, "Including Change and Stability in Belief Systems and Personality Structur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41, p.164, 1985.
- [6] M. Rokeach, M. Miller, and J. Snyder, "The Value Gap Between Police and Policed," *Journal of Social Issues*, Vol.27, p.162, 1971.

[7] J. H. Skolnick, *Justice Without Trial: Law Enforcement in Democratic Society*, New York, Wiley and Sons, p.61, 1966.

[8] D. H. Bayley and H. Mendelson, *Minorities and the Police: Confrontation in America*, New York, The Free Press, pp.157-158, 1969.

[9] M. Rokeach and S. B. Rokeach, "Stability and Change in American Value Priorities: 1968-1981," *American Psychologist*, Vol.44, pp.775-784, 1989.

[10] S. Sherrid, "Changing police values," in Spielberger, C., (ed.) *Police Selection and Evaluation: Issues and Techniques*, New York, Hemisphere Publishing Co., pp.167-176, 1979.

[11] R. W. Griffeth and T. P. Cafferty, "Police and citizen value systems: some cross-sectional comparis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3, pp.191-204, 1977.

[12] J. Zhao, H. Ni, and L. P. Nicholas, "Individual value preferences among American police officer: The Rokeach Theory of human values revisited,"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21, No.1, pp.22-37, 1998.

[13] S. Sadd and R. Grinc, "Innovative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An Evaluation of Community Policing Programs in Eight Cities," in D. Rosenbaum (ed.), *The Challenge of Community Policing: Testing the Promises*, Thousand Oaks, CA, Sage, p.35, 1994.

[14] J. Zhao, H. Ni, and L. P. Nicholas, "Individual value preferences among American police officer: The Rokeach Theory of human values revisited,"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21, No.1, p.28, 1998.

[15] A. M. Webber, "Crime and Management: an

Interview with New York City Police Commissioner Lee P. Brown," *Harvard Business Review*, p.125, May/June 1991.

[16] G. W. Cordner and R. C. Trojanowicz, "Patrol," in Cordner, G. and Hale, D. (eds), *What Works in Policing?: Operations and Administration Examined*,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 1992.

[17] D. A. Lewis, J. A. Grant, and D. R. Rosenbaum,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form: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Organization," Draft Final Report, Volume II, Center for Urban Affairs and Policy Research,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1984.

### 저 자 소 개

#### 한 상 암(Sang-Am 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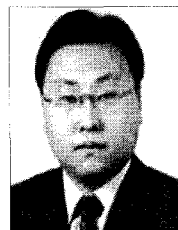
정회원



- 1986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행정학사)
- 1990년 5월 : The Wichita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Justice (MA)
- 1997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법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교수  
<관심분야> : 경찰학, 교정학, 민간경비

#### 정 덕 영(Duke-Young Jeong)

정회원



- 2000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석사)
- 2003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경찰행정학전공 교수  
<관심분야> : 경찰조직발전, 학습조직, 첨단기술활용